

한화석유화학, 탄소나노튜브 양산

응용소재 수급난 해소 기대 ... 고품질제품 생산 응용개발 박차

한화석유화학은 부평의 한화나노텍(구 일진나노텍) 공장에 탄소나노튜브 양산설비를 완공하고 본격 상업생산에 들어갔다.

부평공장은 연간 100kg의 단일 벽 탄소나노튜브(Single-walled CNT)와 연간 4톤의 다중 벽 탄소나노튜브(Multi-walled CNT)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탄소나노튜브 응용소재 개발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급난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최규동 한화석유화학 신사업부문장은 “고품질의 맞춤형 탄소나노튜브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응용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화석유화학은 현재 투명전극, 백라이트유닛(CNT-BLU), 초고용량 커패시터(CNT Super Capacitor), 전도성 플라스틱 자동차용품 등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분야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2013년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자해 2015년에는 2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탄소나노튜브 분야 전문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.

한화석유화학은 탄소나노튜브 사업을 위해 2008년 5월 탄소나노튜브 전문기업인 일진나노텍의 지분 67%를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고 기업명을 한화나노텍으로 변경했으며 11월에는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78.6%까지 높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12/22>